

國際化時代に 부응하는 淸州大學校

李 鍾 益

(淸州大 總長 職務代理)

1. 建學理念과 略史

1) 教育救國의 建學精神

大學은 研究와 教授를 통해서 사회와 역사에 이바지하는 진리 수호의 집단으로서 한 大學의 建學精神은 그 大學의 魂이요, 表象이 된다.

따라서 훌륭한 大學이란 밖으로 크게 보이는 시설이나 규모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로 어떠한 精神을 가지고 설립되었고 그 정신을 어떻게 구현해 가고 있느냐, 즉 ‘훌륭한 魂’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록 지방에 위치해 있고 규모 또한 크지는 않으나 淸州大學校는 자랑스러운 民族私學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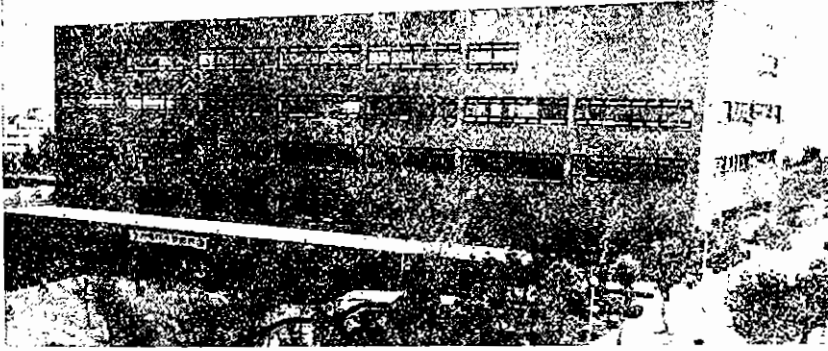
설립자는 淸巖 金元根, 錫定 金永根 선생 형제분이고 建學精神은 ‘教育救國’이다. 그리고 진리 탐구, 덕성 함양, 실천 봉공을 교육 지표로 삼고 있다.

이곳에 설립자의 생애를 살펴 볼 지면이 허락되어 있지 않으나, 한마디로 형제분은 맨주먹으로 일어서서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富를 달성한 立志傳의 인물이었다. 그러나 형제분은 평생을 바쳐 피와 땀으로 이룩한 淨財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오직 남을 위해 바친 사랑의 실천자였다. 형제분이 육영 사업에 투신하게 된 것은 애국애족혼의 발로였다. 日帝의 식민지하에서 祖國의 自主獨立을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을 기르는 길은 教育밖에 없음을 통감하게 된 형제분은 천신단고 끝에 얻은 전 재산을 育英에 쾌척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음 속 깊은 곳에 간직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日帝의 총칼 앞에 억눌려 숨통이 막혀 있던 이 민족을 구출하고자 하는 일념이 1924년 大成普通學校의 설립으로 형상화되었고, 이후 淸州商業, 淸州女商을 차례로 세워 抗日 獨立精神을 고취하며 教育救國運動의 선봉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國權 更生의 길은 오직 教育밖에 없다”, “총칼 드는 일보다 더 중한 일은 백성을 깨우치는 일이다”라고 한 近代 先覺者들의 教育理念과 軌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近代 私學들이 설립자 혼자 힘만으로 학교를 설립·운영하지 못하고 남의 힘을 많이 빌린데 반하여 淸巖·錫定 형제분은 오직 자신들만의 저력으로 육영 사업을 전개했었던 점을 주목할 만하다.

또한 大成普通學校가 설립되던 1924년 당시 私立學校 수가 6백여 교에 달했으나 오늘날까지 존속된 학교는 불과 30여 개교(종교계가 아닌 학교는 10여 교)임을 볼 때 大成學園 創業理念이 얼마나 유원하고 응골찼던가를 알 수 있게 한다.

日帝時代의 이 教育救國 정신은 광복 후 淸州 商科大學을 설립하면서 民主國家 建設期의 教育立國 정신으로 昇華되었다.



◀ 淸州大는 지속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 에 최대 역점을 두고 '研究하는 敎授, 공부하는 大學生' 기풍 진작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진은 中央圖書館 전경.

2) 漢水 以南 最初의 大學

1946년 11월 18일 설립 인가되고 이듬 해 6월 6일 개교한 淸州商科大學이 바로 淸州大學校의 명예로운 前身이다. 설립자 淸巖·錫定 형제분은 새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高級人力 양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생각하고 年秋 收 2,200 석의 토지와 현금 5백 만 원(당시)을 내놓아 大學을 설립하였다.

이 淸州商大는 해방된 후에 우리의 손에 의해 인가를 받은 최초의 4년제 대학이었다. 즉 해방 직후 日帝下에 있었던 전문학교가 4년제 대학으로 승격·개편된 대학은 몇 대학이 있었으나 순수한 신설 인가로는 제1호였던 것이다. 또한 漢江 이남 지역으로 보면 최초로 세워진 정규 대학이었다. 이와 같은 광복 1호 대학이 당시 인구 4만에 불과하던 지방 도시 淸州에 설립된 것은 경이적인 일로서, 이후 淸州가 교육 도시로 발전함에 그 바탕이 되었다.

설립자 형제분은 또 淸大를 설립함에 있어 법인내 既存學校(大成普通·淸州商業 등)의 '승격 설립' 방법을 택하지 않고 순수한 신설로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私學들이 유치원 또는 中等學校를 승격, 개편하는 방편을 써 大學은 해방 후에 세웠으면서도 그 역사를 유치원 또는 中·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환산하는 편법과 꾀 대조적인 사실이다.

淸州商科大學은 1950년 法學部和 夜間部를

늘리면서 校名을 淸州大學으로 변경하였고 '54년에는 大學院도 설치, 착실한 발전을 거듭했다.

그러나 6·25와 4·19, 5·16 등을 겪으면서 교세가 한동안 위축되기도 했으나 1965년 金俊喆 박사가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장기발전 계획을 세우고 교세 확충을 의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66년 당시 불과 1천 명 선이던 학생정원이 15년 뒤인 '80년에는 6천 명으로 늘어나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또한 시설면에서도 설립자 시대에 구축되었던 붉은 벽돌 5개동의 웅장한 울타리를 헐고 우암산 기슭 넓은 터전에 새로이 현대식 건물 8개동을 신축함으로써 淸州大學校는 新·舊式의 건축 양식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캠퍼스 타운'으로 조성되었다.

3) '81년에 綜合大로 轉換

淸州大는 1981년 3월 1일을 기해 종합대학교로 출범하였다.

6개 단과대학 1대학원 체제로 종합대의 새문을 연 淸州大學校는 새 체제에 맞게 기구를 확대 개편하였으며 계속적인 增科 增員과 施設 擴充을 기해 세계에서 손색 없는 대학으로 접근해 갔다.

'81년 經商大 건물 완공으로 강의실 확보율 우수 대학이 된 淸大는 교수 연구실 1인 1실 체제를 갖추었고 '84년에는 5천 평 규모의 메

더드 中央圖書館을 준공, 개관하였다. 3천여 석의 열람석과 8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할 수 있는 규모의 이 중앙도서관은 현재 25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크게 박차를 가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行政의 電算化도 완벽하게 구축되었다.

또한 날로 도심화되고 있는 牛巖山 기슭에 20여 만 평의 教育用 施設用地를 확보함으로써 장차 2만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눈부신 外的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內實 또한 함께 다져 卒定制 실시 이후 入學競爭率이 매년 높아가고, 확대된 獎學制度 등에 힘입어 이 고장 수재들이 대거 지방해 오는 경향을 보여 캠퍼스의 면학 분위기가 날로 높아 갔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大學院 중심 교육 기반 확충도 병행되어 産業大學院과 行政大學院이 신설되었고, 碩·博士 과정에 대폭적인 증과 증원이 있었다.

현재 淸州大學校는 7개 단과대학 51개 학과(야간 개설 학과 포함) 그리고 3개 대학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재학생 수는 학부 9,591명, 대학원 331명, 졸업생은 학부 15,253명, 대학원 487명이다. 시설 현황을 보면 校地 129,793평, 校舍 20,854평 규모이다. 그리고 學校法人大成學園은 본 淸州大學校를 비롯한 초·중·고등학교 등 7개교가 있고 재학생 수는 2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2. 淸州大學校의 特色

1) 勉學雰圍氣 最高의 大學

淸州大學校는 현재 지속적인 勉學雰圍氣 造成에 최대 역점을 두고 대학의 모든 역량을 이것에 집중시키고 있다.

'81년 종합대학교 전환 이후 다져지기 시작한 이 勉學風土는 '84년 매머드 중앙도서관의 준공과 '86년 대단위 종합강의동의 탄생으로 더욱 심화됨으로써 각종 國家考試와 就業公採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한 예로 중앙도서관의 경우 하루 평균 5천여 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여름 방학의 경

우 냉방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원 1천 만 원까지 소요되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시위나 소요사태로 인한 休講이 거의 없었으며, 방학이 끝나고 開講을 하면 개강 첫 날 첫 시간부터 정상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전통화되었다.

이와 함께 장학 제도가 매년 확충되어 전교생 중 30% 이상이 장학 혜택을 받고 있다. '87학년도 경우 1,2학기를 합쳐 총 5천 4백여 명에게 19억 2천 70여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중전에는 司法·行政考試를 준비하는 法大生들만의 특별연구실(淸錫軒)만 있던 것이 '85년부터는 公認會計士 준비의 經商大 淸錫軒, 각종 기술고시 준비의 理工大 淸錫軒 등 4개가 있으며 수용 학생 수는 6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곳에서 매년 각종 국가고시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구열에 힘입어 최근 大學出身者의 就業難 속에서도 淸州大學校는 지방에 위치한 대학으로서 비교적 양호한 취업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3년간의 졸업 전 취업율을 보면 '84학년도 62%, '85학년도 56%, '86학년도 58.2% 선이다.

한편 '85년부터 淸錫學術賞 제도가 마련되어 매년 人文, 社會, 自然 등 3개 분야에 교수 1명씩을 선정,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勉學雰圍氣 造成에 최대 역점을 두므로써 '研究하는 教授, 공부하는 大學生'의 기풍이 크게 진작되었다.

2) 國際化時代에 앞서가는 大學

世界 각처의 名門大學과 상호 협력 관계를 맺어 學問 水準의 國際化를 기하고 새로운 世界思潮를 호응함은 물론 東洋文化의 世界的 보급을 위하여 海外 交流가 확대·강화되어야 함은 오늘날 우리나라 大學의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959년 國際文化研究院을 설치하여 先進 外國文化의 적수입을 도모해 온 淸州大學校는 부설 연구기관 활동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게 되어 '70년대에 와서는 外國 著名大學과 직접적인 자계 결연을 맺기 시작하였다.

'74년 美國 동부 지역의 센트럴·코네티컷州 立大와 결연한 후 '76년에는 中國 文化大學, '83년 英國의 헨대, '84년에는 美國 캘리포니아주 國際大學校(U.S.I.U.)와 결연했다. 이밖에 필리핀의 세이버어大, 美 산타클라라大, 예일大, 中國 臺灣大 등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현재 프랑스, 日本 등지 대학과의 결연도 추진중에 있다. 結緣活動은 教授·學生交流를 주축으로 도서와 學術 資料의 교환, 體育 팀의 친선 교환 경기, 교환 전시 등 다양하다.

이처럼 外國의 名門大와 결연 사업을 펴는 한된 國際化時代에 대비하기 위해 外國語教育의 強化, 教授·學生의 海外研修 확대, 外國 著名教授 초빙 강연, 토폴 特講 등을 의욕적으로 펴고 있다. 특히 教授·學生의 해외 파견을 돕기 위해 특별 장학 및 연수 기금을 마련, '86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수 년 동안의 의욕적인 노력에 힘입어 淸大人의 國際的 競爭力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 한 예로 금년 여름 日本, 自由中國 등지에 同窓會 支部까지 결성되었음을 상기해 볼 만하다.

3) 地方化時代를 先導하는 大學

大學은 大學人만의 것이 아닌 그 지역 사회인의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오늘날 地方化時代를 열어감에 있어서 그 先導的 역할을 담당할 곳은 역시 그 지역에 위치한 大學이라 할 것이다. 또한 大學에 속해 있는 高級人力이 그 地域 發展의 方向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소시켜 주면서 産學協同을 기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淸州大는 각 부속 기관과 研究所, 각 學科 등에서 地域 發展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매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머지 않아 건설될 것으로 알려진 淸州國際空港과 연결시켜, 國際的 關門都市로서의 方向 제시를 위한 社會·産業科學研究所의 각종 세미나가 최근 크게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한 博物館에서 興德寺社를 발굴, 세계적인 印刷文化의 발상지가 이 地方임을 확인해 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 준 폐거였다. 또한 藝術大學에 설치되어 있는 각 學科는 이 고

장 藝術文化活動의 活力素가 되어 地域文化 창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産業·行政大學院의 신설로 이 지역 高級人力 養成 및 再教育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4) 建學精神을 宣揚하는 大學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숭고한 建學精神을 宣揚하기 위해 淸大는 다각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설립자 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總長)에서는 영화 제작, 전기 발간 사업을 편에 이어 지난 해 淸巖 誕辰 1百周年을 맞아 형제분의 生涯와 思想을 재조명해 보는 學術發表會도 개최하였고 금년에 이 결과를 단행본으로 발간한 바 있다.

영화 「偉대한 平凡」은 설립자의 生涯와 大學의 발자취를 엮은 기록 영화로 매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상영하고 있으며, 韓雲史 著 「偉대한 平凡」 또한 설립자의 전기로서 出版部에서는 신입생 전원에게 이 책자를 무료로 공급, 設立者의 建學精神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캠퍼스 禮節教育 強化를 도모하고 있는 바 女學生會가 매년 개설하고 있는 '옥잠규수학당'이 그 실천의 좋은 한 예가 되고 있다.

3. 淸州大學校의 未來像

1) 發展計劃의 方向

淸州大學校는 40의 壯年을 맞이한 오늘 對外的인 現實的 與件을 수용하고 새로운 理想을 추구하면서 新知識의 계발, 傳統의 계승과 改革의 調和를 통해서 未來指向的인 大學으로서의 발전상을 定立해야 할 時點을 맞이했다.

이러한 觀點에서 淸大는 이미 長·短期 發展計劃을 수립, 실천해 가고 있는 바, 그 기본 방향은 다음의 5개항으로 집약되어 있다.

첫째, 高度産業社會의 전문 인력 수요 증대와 國際的 경쟁력 향상 및 고등교육의 보편화에 따라 규모의 확충이 불가피하다.

둘째, 量的 팽창과 함께 質의 高度化가 수반되

어야 하므로 教育 및 研究 水準을 高度化하여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세째, 基礎學問의 육성, 應用科學, 尖端科學을 수용·발전시키기 위하여 學科의 상호 의존성, 전문성, 다양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네째, 새로운 學科의 신설 계획 등에 발맞추어 大學 편제를 연구·재정비하고 大學 機能을 원활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섯째, 학생 증원에 따른 大學의 규모와 기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2) 勉學施設의 확충

淸州大學校의 발전 계획은 장·단기로 나뉘어 있다.

短期는 1990년까지의 3개년 계획으로서 이 기간 동안 3천여 평의 藝術大 건물과 1천 6백 평 규모의 학생 기숙사 그리고 8백여 평의 理工大學 실험실습동을 준공시킬 계획으로 금년에 이미 착공되었다.

이와 함께 첨단 과학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 위해 국내 유일 학과인 반도체공학과, 물리광학과의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획기적인 학생 후생 복지 시설 확충·개선 계획도 병행 추진된다.

그리고 長期 計劃으로서는 '90년대초에 교지 20여 만 평, 校舍 건평 4만 평 규모로 확충하면서 韓醫科學大學을 신설하는 등 교세 신장을 기해 재학생 수를 현재의 1만 명 선에서 1만 5천 명으로 늘려 나갈 방침이다.

淸州大學校는 천혜의 땅 牛巖山 기슭에 쾌적한 캠퍼스 타운을 건설하여 세계의 대학으로 웅비해 가고자 하고 있다.

3) 教育 先進化의 길

훌륭한 建學精神을 더욱 선양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眞理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教育

의 內質化, 先進化가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淸州大學校는 다음과 같이 教育 內質을 다지는 방안을 설정, 실천하고 있다.

첫째, 施設計劃을 추진함에 있어 제 1목표를 안정되고 쾌적한 教育·研究 환경 조성에 둔다.

둘째, 教授의 연구 의욕과 교육 열의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연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教育 內質化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우·인사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해외 파견, 특별 연구비 지급 등 연구 여건의 증대와 활동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세째, 教育 및 그 方法의 質的 向上과 교수 요원의 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연구 지원을 위한 뒷받침을 충분히 한다.

네째, 교육 실습 기자재 및 설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그 現代化를 기한다.

다섯째, 敎科課程을 부단히 연구, 개선하고 새로운 敎材의 편찬 및 평가와 함께 敎務學事行政을 개선한다.

여섯째, 지속적으로 道內 우수 학생 유치에 주력함과 동시에 敎養, 語學 강좌의 강화 및 정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적인 자질을 향상시키고 大學人으로서의 교양과 실력을 갖추도록 덕성 함양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 문화 행사, 건전한 서클 활동을 지원하며 全人教育에 힘쓴다.

일곱째, 教授의 師道精神과 學生의 敎授에 대한 존경심이 기초가 되는 학생 지도에 힘쓰며, 학생들이 학업 열의를 증진시키고, 가정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

淸州大學校는 이와 같은 7개항의 內質化 계획을 세우고 全構成員이 一體感을 이룬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國家社會와 歷史發展의 힘을 제공하는 民族의 大學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